

사도세자 불교식 제향 복원

6월 24일 용주사서...246주기 맞아 100년만에 봉행



당쟁의 소용돌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도세자(영정사진)를 추모하는 불교식 제향이 100년만에 복원된다.

용주사(주지 정호)와 경기문화연대(상임수석대표 문석창)는 246주기 사도세자의 기일을 맞아 100여년 동안 단절되었던 제향

을 복원, 6월 24일 오후 7시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46주기 제향을 봉행한다.

이날 제향은 오후 5시 용릉(사도세자릉)과 정조대왕 초창 왕릉터 참배, 오후 7시 홍살문 복원식에 이어 용주사 대웅전에서 본 행사가 시작된다. 타종(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과 현향 및 현화(웅·건릉분향회), 개식사와 봉행사(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사도세자 행장 낭독에 이은 제향의식은 독경, 다례, <부모은중경> 독송, 진혼 살풀이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문화재청장과 경기도지사의 추모사, 시민대표의 추모시, 경기문화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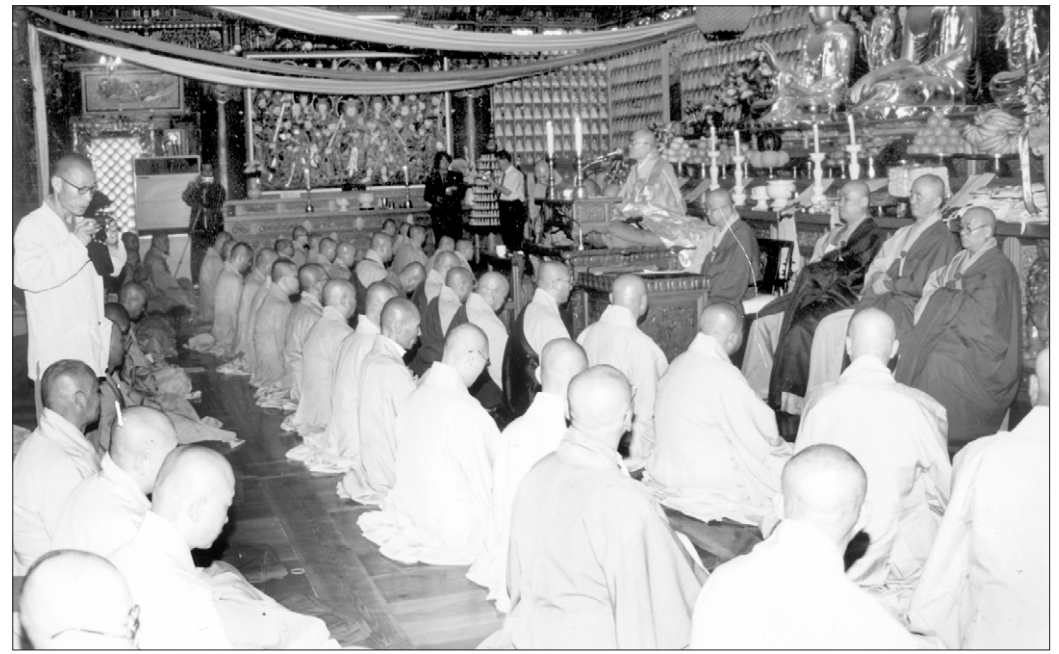
의 '효 문화비전' 선언 등이 진행된다.

용주사 포교국장 덕림 스님은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의 능인 용릉과 건릉(사적 206호)은 우리 효 문화의 상징이고 웅·건릉이 있는 용주사는 효의 본찰(本刹)"이라며 "이번 제향은 정조의 효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긴 것을 복원해 사도세자 246주기를 맞아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도세자의 불교식 제향 복원은 지난 해 8월 10일 정조대왕 207주기를 맞아 100년 만에 불교

식 제향을 복원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극한 효심의 군주였던 정조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부친 사도세자의 제향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7년 고종(高宗, 조선 26대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해 용주사에서 제향을 올렸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뿐, 그 이후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MBC 인기드라마 '이산' 촬영지로 주목을 받은 용주사는 사도세자(용릉)와 정조(건릉)의 명복을 비는 능침(陵寢, 묘역)사찰로 1790년 정조가 옛 길양사 자리에 중건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삼화불교 비구·비구니 28명 탄생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총무원장 혜인)은 5월 30일 여주 백화사에서 제 10회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및 하안거 입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법회 수계자는 비구 17명, 비구니 11명 등 모두 28명으로 대학졸업 학력이상, 평균연령 38세의 스님들이다. 김성우 기자

'남북통일기원' 백고좌 법회 개최

봉원사, 청소년에 장학금

대구 법왕사서 18일부터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기원을 위해 한국불교의 선지식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법왕사 큰법당에서 '경·울·륜 삼장'을 주제로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 18회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한다.

법왕사는 6월 18일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법문을 시작으로 입제해 무진장 스님(동산불교대학장),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 등의 설법을 진행한 후, 100일차인 9월 30일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법문으로 회향과 함께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도 봉행한다.

백고좌 법회는 100분의 큰스님을 모셔 100일 동안 법문을 듣는 법회. 올해 제18회를 맞는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대표적인 백고좌 법회로 평가 받고 있다.

실상 스님은 "올해 백고좌법회는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준비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왕사는 6월 18일 백고좌 법회 입제 전인 17일 저녁 7시에는 범능 스님, 이상 스님, 유진박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를 연다. 6월 20~22일에는 설악산 오세암과 봉정암 순례법회도 열 예정이다. (053)766-3747 조종섭 기자

서울 봉원사 불자 신행단체인 원각회(회장 노대행)는 6월 11일 설법전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6년부터 장학금을 수여해 온 원각회는 이날 어려운 형편에도 뜻깊은 학업에 정진해 온 유수진 양 등 남녀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각회 노대행 회장은 "매년 장학금 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삼일법사 일운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소중한 정성들을 맡겨줌으로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조 도의 국사 추모 다례제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조계종, 종조선양사업 지속 추진 방침

스리랑카복지타운 도선사서 위탁기로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위탁자로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결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사회부 관계자는 6월 3일 "그동안 중회 종책모임 화입회가 현지 답사에 나서는 등 여러 단계에서 관심을 보였던 스리랑카 복지타운 운영자로 초기에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혜자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선사가 위탁자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정을 마친 후인 17일경 도선사와의 협약식에 이은 공식 발표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스리랑카복지타운은 前 총무원장 법상 스님이 지난 2004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복지시설. 2만5천여평의 부지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이 운영되며 오는 7월 8일 개원한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조계종조 도의 국사의 기일을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로회의 자석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 8명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상단불공을 식전행사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행장소개와 총무원장 스님의 추모사, 밀운 스님의 종정 법전스님의 법어대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 도의 종조 다례제를 봉행한 조계종은 종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달 중국 난창 우민사에서 도의국사 구법 기념비 제막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10월 중국 남화선사에서 순례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종조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6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에서 종정 법어를 대독하는 원로의원 밀운 스님. <사진=노덕현 기자>

신도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 기획실은 가람지기 3.0버전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신도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연동, 입력의 2중 등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수정 개발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도관리 프로그램에서 접수 처리된 기도, 불사, 제사, 인등, 연등, 회비 등의 입력데이터를 재무관리 3.0버전에서 일별 또는 기간별로 해당 결의서에 바로 등록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했다.

설치를 원하는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가람지기 재무관리 3.0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면 된다. 김성우 기자

법에서 접수 처리된 기도, 불사, 제사, 인등, 연등, 회비 등의 입력데이터를 재무관리 3.0버전에서 일별 또는 기간별로 해당 결의서에 바로 등록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했다.

설치를 원하는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가람지기 재무관리 3.0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면 된다. 김성우 기자

"불교생태복지에서 '생명 위기' 해법을"

불교사회복지연구소 학술포럼 개최

대구도 천재지변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위기시대의 불교복지의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태! 불교복지를 만나다'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불교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생태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1부는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생태!! 왜 이 시대의 화두인가'란 주제발표와 오지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의 토론이, 2부는 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의 '생명위기 시대의 불교복지' 발표와 최경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3부는 장희정 단국대학교 강사의 '사찰!! 대안교육을 품다' 발표와 이에 대한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대원 스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형정보험기약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시(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마륜 보살 등 12보살이 열여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 함허동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권,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